

#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의 시행 및 주요 결과

신 현 구\*

## I.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고령화가 초래할 사회적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고령화에 관한 정책 및 학술 연구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005년부터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받아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영문명: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약자로는 KLoSA (클로사))<sup>1)</sup>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있다. KLoSA는 7월 중에 지역별 면접원 교육을 마치고 제1차 기본조사(1st wave)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1차 기본조사에 앞서 실시한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비조사(pilot study)는 실제 조사에 앞서 실제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예비조사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실제 조사에서 활용할 방식을 미리 시행해 봄으로써 조사 수행방식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실제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조사 설계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발견하여 미리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그리고 조사표의 타당성 검증, 특히 고령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hin@kli.re.kr).

1)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명칭은 처음 사업 추진 당시 고령자패널조사 또는 중고령자패널조사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45세 이상 중년 계층도 포함하고 있어서 패널 구축 및 조사 과정에서 50세 전후의 중년 계층이 고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막고, 더불어 명칭에 조사대상자보다는 조사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로 최종 확정하였다.

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는 CAPI 이용에 대한 최종 점검이 필요했으며, 조사원 교육훈련 등도 예비조사를 통하여 미리 점검할 사항이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 7월 말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제1차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지난 4-5월에는 600가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를 어떻게 시행하였는지를 간단히 소개하고, 예비조사에서 나온 결과의 일부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예비조사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며, 둘째, 예비조사에서 나온 흥미로운 몇몇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다.

## II.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 소개

### 1. 조사 목적 및 일정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는 2006년 7월부터 실시할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이하 본조사)를 대비하여 실사 관련 모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점검하고자 실시하였다. 패널 구축 방법, CAPI 방식 점검, 면접원 교육, 실사 관리, 데이터 전송 등이 보다 구체적인 예비조사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 소요된 전체 일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조사구 표집에서 데이터 정리

<표 1> 예비조사 전체 일정

과 정	날 짜
조사구 표집	2006년 3월 27일 ~ 3월 31일
조사구 유도 및 가구 명부 복사	2006년 4월 3일 ~ 3월 5일
조사구 탐색	2006년 4월 6일 ~ 4월 11일
가구 표집	2006년 4월 12일 ~ 4월 13일
면접원 교육	2006년 4월 13일 ~ 4월 21일
면접 실시	2006년 4월 20일 ~ 5월 23일
데이터 정리	2006년 5월 24일 ~ 5월 31일

2) 예비조사 표본은 엄밀하게 확률표집을 하지 않았다. 임의적으로 지역을 선정한 후 조사구 표집 및 가구 표집은 본조사에서 시행할 방식으로 확률표집하였다. 지역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 선정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로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따라서 예비조사에서 나온 통계치 해석은 예비조사 표본에 한정한다.

까지 전체적으로 소요된 기간은 약 2개월이었으며, 실사에 소요된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약 1개월이었다. 실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였다.

## 2. 조사 지역 및 표집

예비조사의 조사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특광역시와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충남 등 5개 도로 모두 10개 권역이었다. 지역 선정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조사 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도시 지역인 5대 특광역시와 도 지역의 중소도시, 읍면 지역을 유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5개 도에서는, 경기에서는 고양시와 부천시, 충남에서는 천안시와 공주시,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화순군, 경북에서는 경산시와 고령군, 경남에서는 함안군과 창령군을 선정하였다.

각 지역에서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가운데 선정 지역의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일반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포함)를 층으로 분류한 후 각 층에서 행정구역 코드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아파트조사구 3개, 보통조사구 5개를 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이렇게 10개 지역에서 각각 8개 조사구를 표집, 모두 80개 조사구를 표집하였다. 다만 표집틀(sampling frame)이 5년 전의 것이어서 철거, 재개발사업 등으로 현재와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조사구를 표본조사구수만큼 추출하였다.

표본조사구에서 표본가구를 추출하기 전에 먼저 조사구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조사구를 탐색하였다.<sup>3)</sup> 이는 2000년과 현재 달라진 점을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함인데, 이 과정에서 일반주택조사구가 아파트 단지로 변동된 경우,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표본조사구 6개를 예비조사구로 대체하였다.

조사구 탐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표본조사구를 확정하고, 각 표본조사구의 가구 명부를 이용하여 특광역시 지역은 조사구별로 각각 8개 가구를, 도 지역은 조사구별로 각각 7개 가구를 계통표집하였다. 최종 표집된 가구는 서울, 부산 등 특광역시 5개 지역에서는 지역당 표본조사구 8개, 표본조사구당 표본가구 8개로 모두 320가구이며, 경기, 경북 등 5개 도 지역은 지역당 표본조사구 8개, 표본조사구당 표본가구 7개로 모두 280가구였다.

조사원은 이렇게 표집된 600개 가구를 모두 방문하여 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는 방식으로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 패널을 구축하고 면접을 진행하였다.<sup>4)</sup>

3) 2006년 7월에 시작하는 본 조사 표집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집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조사구 탐색을 생략하였다.

### 3. 설문 내용

예비조사의 설문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 조사 설문 내용과 동일하다. KLoSA 설문 내용은 인구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경제학, 사회학 등 학제적 연구를 위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인구학적 특성,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 등 7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영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2>에서 볼 수 있다.<sup>5)</sup>

예비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는 일부 문항의 삭제 및 추가, 용어나 문구 수정 등 조사표를 개선하기 위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표 2> 예비조사 설문 영역과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인구학적 특성	생년월일, 학력, 혼인상태, 종교 등
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사항, 경제적 이전, 보살핌 노동, 사회활동 등
건강	건강상태, 만성질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료보장과 시설 이용현황, 인지력, 약력 등
고용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구직자, 은퇴자,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사항 등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회보장소득, 기타소득, 가구원소득 등
자산	거주지 자산, 거주지를 제외한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상속/증여, 부채, 가구원자산 등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	유산 증여/상속, 근로기간, 기대수명, 생활수준 등에 대한 기대감, 소비성향, 삶의 만족도 등

### 4. 면접원 교육

예비조사를 수행한 면접원은 모두 29명이었다. 면접원 교육은 면접원 29명과 지역별 실사 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3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에서 2일씩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조사에서 면접원 교육은 표본을 찾고 설문 내용을 숙지하는 수준에서 대략 몇 시간 정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KLoSA는 설문 문항이 매우 많고,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CAPI) 방식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 및

- 
- 4) 예비조사 표본 및 패널 구축은 본 조사와는 상관없이 예비조사에만 한정한다. 따라서 예비조사 표본은 본 조사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 5) KLoSA의 설문 내용은 학제적 연구와 국제비교연구를 위하여 매우 많은 문항을 담고 있어서 지면상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팀에서는 『노동리뷰』 다음호에서 구체적으로 설문 내용을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CAPI 설문에 대한 교육시간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지력과 악력을 측정해야 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되어 많은 교육시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예비조사 면접원 교육은 1일 7시간씩, 2일간 14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서울경기·대전·충남 지역 면접원은 서울에서, 광주·전남 지역 면접원은 광주에서, 대구·경북·부산·경남 지역 면접원은 부산에서 3차례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KLoSA 및 예비조사 소개, 설문구조 소개, 가구방문지 기록 방법, 노트북 사용법 및 CAPI 소개, 설문 영역별 CAPI 실습, 인지력과 악력 측정 교육, 직업 및 산업 분류 교육, 면접실습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면접원들이 CAPI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대부분의 교육시간을 설문 영역별 CAPI 실습에 할애하였다.

## 5. 조사대상자와의 접촉 과정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조사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면 접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날 수 없어서 다른 가구원이나 정보원을 통해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전화로 조사 참여를 설득한 경우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아파트 가구에서 면접대상자와 인터폰 등을 통해 만나는 경우 면대면(face to face)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결국 면접대상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조사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이후 시간대가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물론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70대 이상 고령자는 낮 시간에 면접이 가능하였지만, 40~50대 중년층은 대부분 일을 하고 있어서 퇴근 이후 늦은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면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농촌 지역은 늦은 저녁(해 떨어진 이후)에 방문해야 조사대상자를 만날 수 있었다.<sup>6)</sup>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조사를 거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았다. 첫째, 늦은 귀가-귀가 시간이 늦어서 면접에 응해 줄 수 없는 경우이다. 둘째, 가족의 반대-남편이나 자녀가 반대하는 경우인데, 고령자는 주로 자녀가 반대하고, 부부의 경우는 남편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기 출타-조사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출타하는 경우이다. 넷째, 개인정보 노출 및 조사에 대한 불신-개인정보 노출

6) 앞서 살펴본 조사구 탐색 과정이나 조사대상자 접촉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정보원의 활용이 매우 중요했다. 아파트조사구는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매우 결정적이었는데, 관리사무소가 조사에 우호적인 경우 조사에 대해 안내방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 아파트 출입을 금지시킨 경우도 있었다. 보통조사구에서는 동부에서는 동사무소, 통장, 부동산 중개소, 주변 상가 등에서, 읍면부에서는 마을 이장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협조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거나 자신에 대한 정보 공개 자체를 꺼려 하는 경우, 또는 조사 기관이나 조사 자체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 6. 면접시간

실사 종료 후 면접원 간담회에서 면접원들은 면접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경우 면접시간이 70~80분 정도 소요되지만,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노트북 등 면접을 준비하는 데에 약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 고령자와의 면접에서는 면접 종료 후에도 1~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사례도 있었다.

<표 3>은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 영역별 면접 시간이 나와 있다.<sup>7)</sup> 문항수가 많은 관계로 문항별 응답시간 대신 영역별 시간을 측정하였는데,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족 및 건강 영역 설문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영역의 경우는 전체 면접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조사 설문에서는 가족 영역의 설문을 일부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사항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질문하도록 설문을 개선하였다. 건강 영역에서도 일부 문항을 삭제하거나 응답이나 입력 방식을 변경하는 수준에서 설문을 개선하여 면접시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표 3> 3차 예비조사 설문 영역별 면접시간

영역	인구	가족	건강	주관적 기대감	소득	자산
소요시간(분)	2.5	40.1	32.9	5.6	4.6	3.3

## 7. 응답률

예비조사 응답률은 <표 4>에 나와 있다. 표집한 전체 600개 가구 가운데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원을 만난 경우는 모두 591개 가구(접촉가구), 사람을 전혀 만나지 못한 가구는 9개 가구로 가구접촉률은 98.5%였다. 부산·대구·경기·경북·경남 지역 가구접촉률은 100%였으며, 서울이 95.3%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특광역시 지역의 가구접촉률(97.8%)이 도 지역(99.3%)보다 낮았다.

예비조사에서 가구원을 접촉한 가구 가운데 45세 이상 중고령자가 거주하는 적격가

7)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고용 영역의 설문 시간 측정이 누락되었다.

구는 364개 가구였으며, 45세 이상 가구원이 거주하지 않는 비적격가구는 227개 가구로 적격가구율은 61.6%였다. 364개 적격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가구원수는 모두 608명으로 적격가구 한 가구당 평균 1.7명으로, 이들이 이번 예비조사에서 수행해야 할 면접 대상자였다.<sup>8)</sup>

면접대상자 45세 이상 가구원 608명 가운데 면접에 응한 조사대상자는 446명이었는데, 끝까지 응답한 사례는 437명, 면접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례는 9명으로 개인을 기준으로 한 최종 응답률은 71.9%였다. 지역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경남이 89.4%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86.2%, 대전 85.4%, 충남 79.7%, 부산 73.2%, 경기 72.0%, 광주 62.3%, 경북 59.6%, 대구 58.1%, 서울 57.8% 순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응답률은 66.4%로 도 지역(경기, 경남, 경북, 전남, 충남) 응답률 77.9%보다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예비조사 응답률

지역	표집 가구	접촉 가구	적격 가구	부적격 가구	응답 대상자	면접 완성	면접 중단	가구 접촉률 (%)	적격 가구율 (%)	적격 가구내 45세 이상	응답률 (%)	
광역시	서울	64	61	40	21	64	37	1	95.3	65.6	1.6	57.8
	부산	64	64	43	21	71	52		100.0	67.2	1.7	73.2
	대구	64	64	45	19	74	43	2	100.0	70.3	1.6	58.1
	광주	64	62	33	29	61	38	2	96.9	53.2	1.8	62.3
	대전	64	62	27	35	48	41		96.9	43.5	1.8	85.4
	소계	320	313	188	125	318	211	5	97.8	60.1	1.7	66.4
도	경기	56	56	32	24	50	36	1	100.0	57.1	1.6	72.0
	경남	56	56	40	16	66	59		100.0	71.4	1.7	89.4
	경북	56	56	31	25	57	34	1	100.0	55.4	1.8	59.6
	전남	56	54	40	14	58	50	2	96.4	74.1	1.5	86.2
	충남	56	56	33	23	59	47		100.0	58.9	1.8	79.7
	소계	280	278	176	102	290	226	4	99.3	63.3	1.6	77.9
전체	600	591	364	227	608	437	9	98.5	61.6	1.7	71.9	

응답률은 지역보다 주택 유형에 따라 더 크게 차이가 났다(표 5 참조). 아파트조사구 응답률은 61.7%이고 일반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보통조사구 응답률은 75.6%로 특광역시 지역 및 도 지역 응답률 차이보다 더 컸다. 가구접촉률도 보통조사구는 99.2%였지만 아파트조사구는 97.3%로 약 2%포인트 차이가 났다.

8) 예비조사에서 조사한, 45세 이상 중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45세 이상 가구원 평균수 1.7명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lt;표 5&gt; 주택유형별 응답률

주택	표집 가구	접촉 가구	적격 가구	부적격 가구	응답 대상자	면접 완성	중단 사례	가구 접촉률 (%)	적격 가구율 (%)	적격 가구내 45세 이상	응답률 (%)
일반 주택	375	372	260	112	446	337	5	99.2	69.9	1.7	75.6
아파트	225	219	104	115	162	100	4	97.3	47.5	1.6	61.7
전 체	600	591	364	227	608	437	9	98.5	61.6	1.7	71.9

### III.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 주요 결과

#### - 고용, 건강,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43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완성한 예비조사의 설문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sup>9)</sup> 앞서 말한 대로 KLoSA의 설문 내용은 매우 많아서 그 결과를 모두 다룰 수는 없으나, 여기서는 고용, 건강, 가족 영역에서 나타난 몇몇 흥미로운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결과 가운데 국제비교가 가능한 경우, 미국 HRS, 영국 ELSA, 유럽 10개국 SHARE 결과와 비교하여 볼 것이다.<sup>10)</sup>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비조사 표본 수가 작을 뿐더러 지역 선정은 확률표집한 것이 아니어서 결과 해석은 예비조사 표본에 한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 1. 고용

##### 가. 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그림 1]에 나와 있다. 일자리 만족도는 임금/소득, 안정성, 근무환경, 일의 내용, 스트레스,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항목에 대하

9)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은 <부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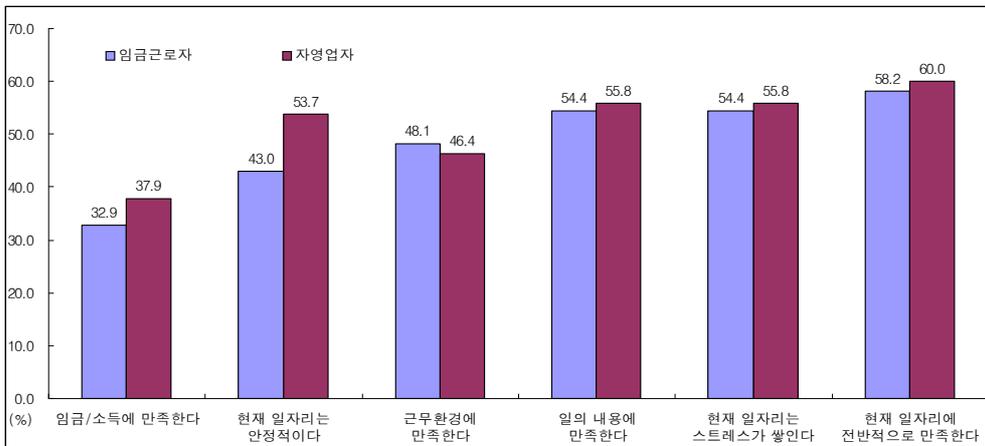
10) 미국은 1992년부터 Health and Retirement Survey(약자로 HRS)를, 영국은 2002년부터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약자로 ELSA)를, 유럽 10개국은 2004년부터 Stud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약자로 SHARE)을 실시하고 있다. 모두 패널조사로서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 예비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외국 자료 HRS, SHARE는 2004년 조사 결과이며, ELSA는 2002년 조사 결과이다.

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중고령자는 임금/소득 만족도를 제외하고 약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자영업자 38%, 임금근로자 33%로 임금/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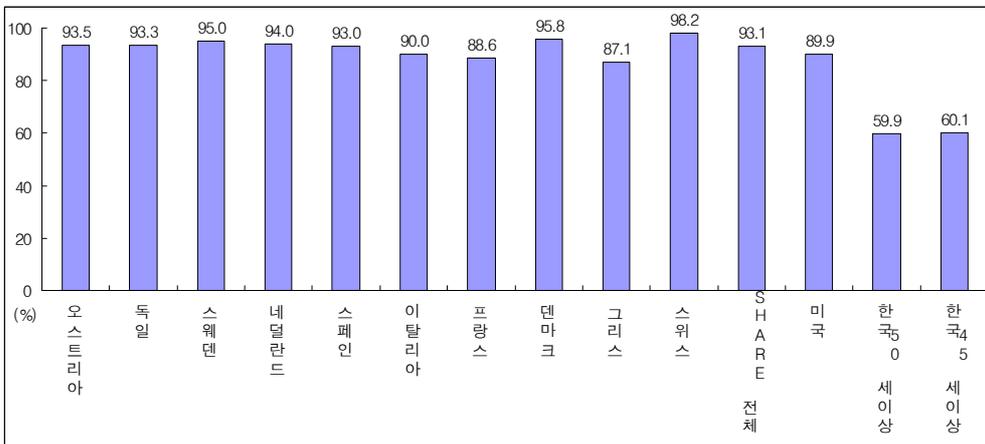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나누어 살펴봐도 일자리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자리 안정성에 대해서 자영업자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54%인 데 반해, 임금근로자는 43%로 그 차이가 약 10%포인트로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현재 일자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유럽 국가 및 미국의 경우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그림 1]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만족도



[그림 2] 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



주: 유럽과 우리나라는 “나의 일자리에 만족한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며, 미국은 “나는 진정으로 일하기를 즐긴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임.

라 중고령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유럽 및 미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우리나라는 60%인 데 반해, 유럽 평균은 93%, 미국은 90%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서구 선진국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유럽 국가 가운데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그 비율이 98%였으며, 덴마크 96%, 스웨덴 95% 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 87%, 프랑스 89%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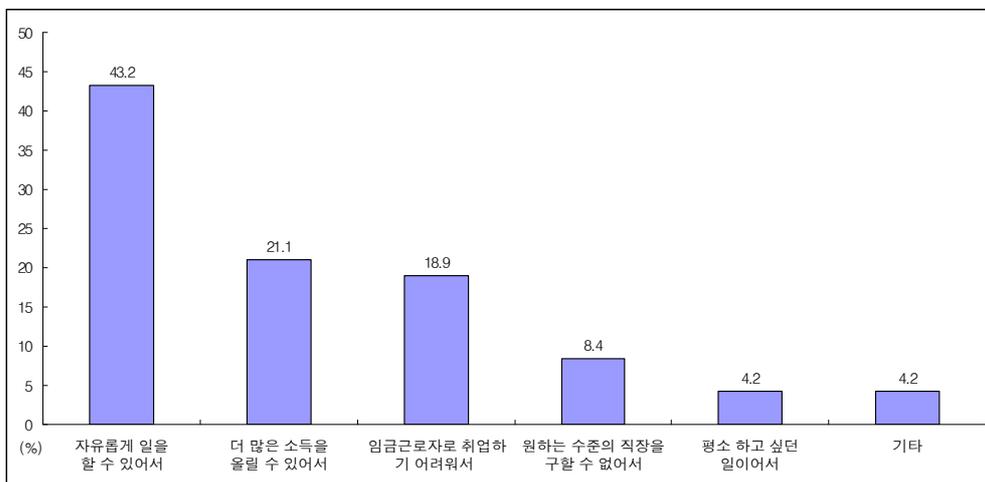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하여 근로소득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로 인한 사회경제적 보상 수준이 좋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차이가 일자리 만족도의 차이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 나. 자영업을 하는 이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일하는 대신 자기 사업을 선택한 이유를 조사하여 [그림 3]으로 나타냈다.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43%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금근로에 비하여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1%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응답 다음으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가 어려워워서’ 19%, ‘원하는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어서’ 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 자영업을 하는 이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중고령자 4명 가운데 1명은 임금근로 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 다. 취업자의 은퇴 계획

현재 일하고 있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언제 은퇴하겠는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43%, 자영업자는 63%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표 6 참조). 미국의 경우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는 5.1%, 자영업자는 9.9%로 우리나라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연령은 임금근로자는 평균 65세, 자영업자는 69세였고, 미국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평균 65세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66세 이후 은퇴하겠다는 비율은 임금근로자 40%, 자영업자 66%로 나타나 자영업자가 더 많은 연령에까지 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66세 이후 은퇴하겠다는 비율은 임금근로자(29%)보다 자영업자(50%)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취업자의 은퇴 의사 및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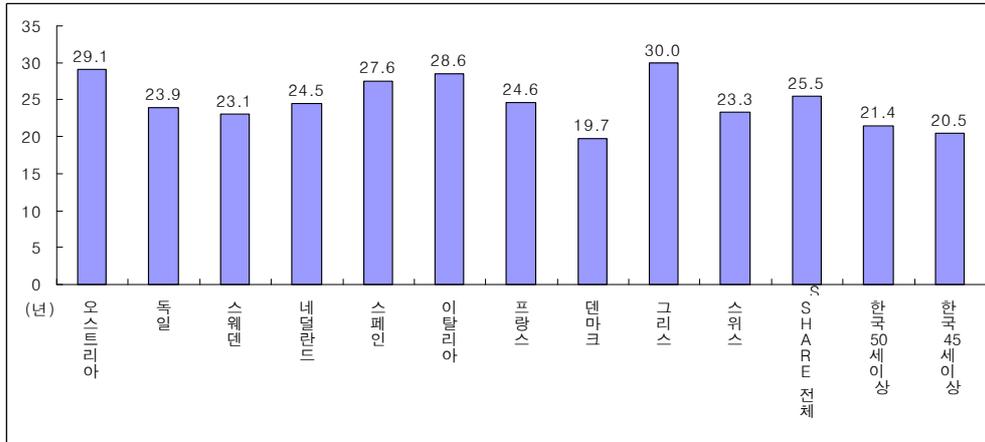
구 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연령		
		평 균	66세 이후(%)	
임금근로자	우리나라	43.0	64.9세	40.0
	미국(HRS)	5.1	65.3세	28.7
자영업자	우리나라	63.2	68.9세	65.7
	미국(HRS)	9.9	65.4세	50.4

#### 라. 노동시장 은퇴자의 마지막 일자리 근속기간

노동시장 은퇴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일자리에서 근속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은퇴자의 마지막 일자리 근속연수는 평균 21.4년으로, 유럽 국가 평균 25.5년에 비하여 약 4년 정도 짧았다(그림 4 참조).

유럽 국가 가운데 근속연수가 가장 긴 국가는 그리스로 평균 30.0년, 오스트리아 29.1년, 이탈리아 28.6년, 스페인 27.6년 등이었으며, 가장 짧은 국가로는 덴마크가 19.7년, 스웨덴 23.1년, 스위스 23.3년, 독일 23.9년, 네덜란드 24.5년 등이었다. SHARE에 참여한 유럽 국가 가운데 덴마크만 우리나라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국가는 모두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노동시장 은퇴자의 마지막 일자리 근속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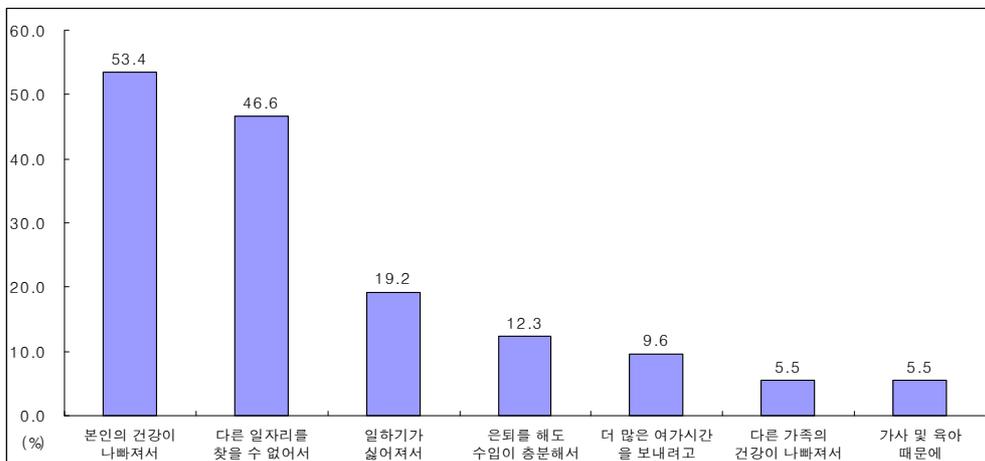


#### 마. 노동시장 은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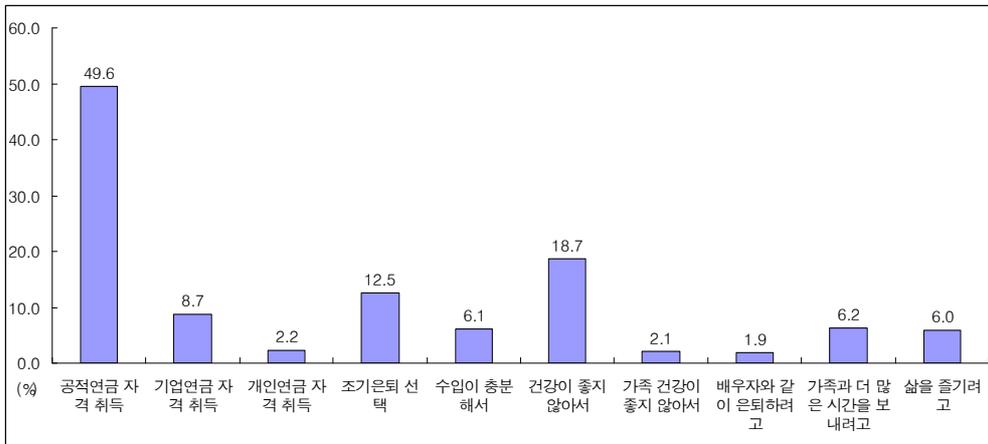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가 5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은퇴하였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반면 유럽 국가들에서는 은퇴 사유가 대부분 연금자격 취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적연금 자격 취득 50%, 기업연금 자격 취득 9%, 개인연금 자격 취득 2%, 조기은퇴 자격 취득 13% 등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그림 5]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유: 우리나라(1,2 순위 복수응답)



[그림 6]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유: 유럽 10개국(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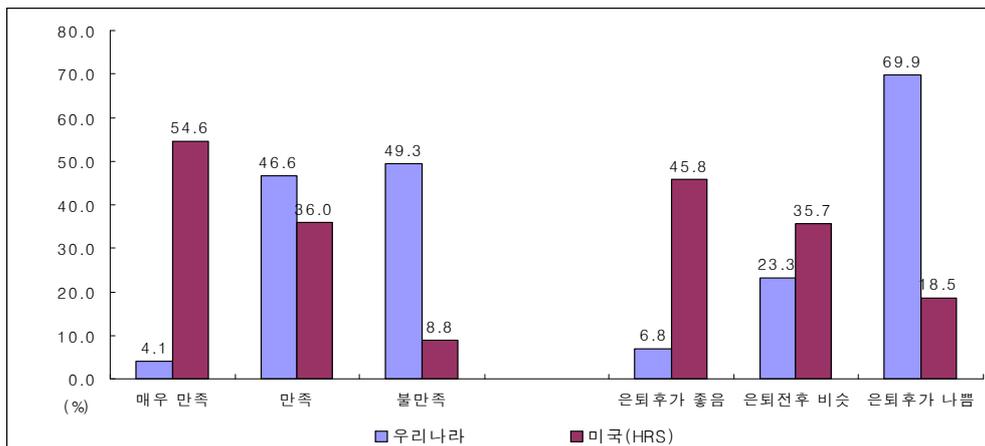


차지했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은퇴했다는 응답은 유럽에서는 공적연금 자격 취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그 비율은 19%에 그쳐 우리나라와는 다른 수준을 보였다.

바. 은퇴에 대한 만족도

이번에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중 고령자는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포함)와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0.7%, 49.3%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은퇴 후가 은퇴 전보다 더 좋다는 응답은 6.3%에 그친 반면, 은퇴 후가 더 나쁘다는 응답은 약 70%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그림 7] 은퇴에 대한 만족도



반면 미국은 은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만 55%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9%로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였으며, 은퇴 전보다 은퇴 후가 좋다는 응답은 46%인 반면, 은퇴 후가 더 나쁘다는 응답은 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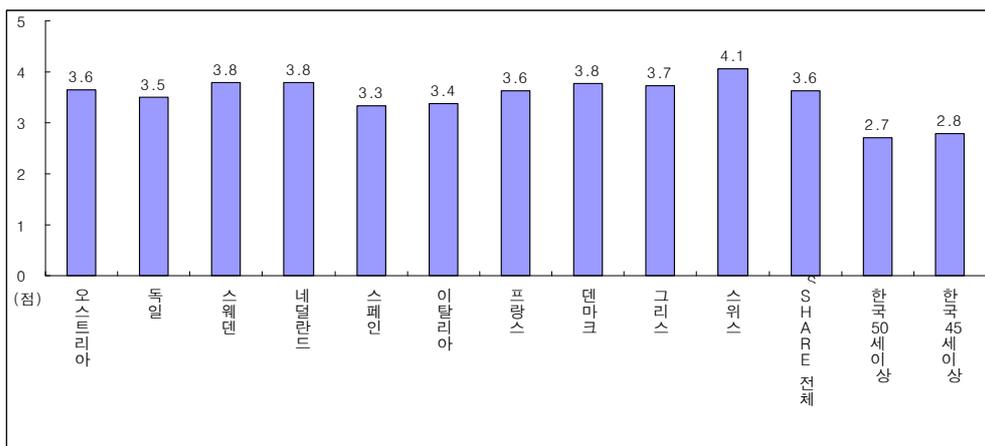
## 2. 건강

### 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긍정적으로(매우 좋음+좋은 편) 응답한 비율은 약 25%였고, 부정적으로(매우 나쁨+나쁜 편) 응답한 비율은 약 46%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절반 가까운 중고령자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4명 가운데 1명만이 좋다고 응답한 것이다.

우리나라 중고령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는 정도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잘 드러난다. [그림 8]을 보면 우리나라는 5점 만점에 평균 2.7점이 나온 반면, 유럽 국가 평균 점수는 3.6점으로 1점 가까이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8]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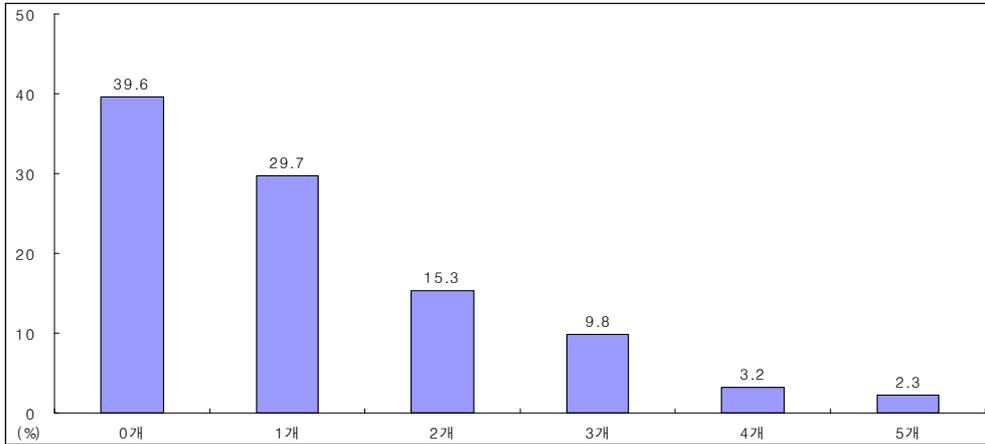
주: 점수는 매우 나쁨 1점, 나쁨 2점, 보통 3점, 좋음 4점, 매우 좋음 5점을 부여하여 평균하여 계산한 것임.

### 나. 주요 만성 질환

건강 영역에서는 고혈압, 당뇨, 암, 폐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우울증, 관절염, 전립선 질환(남성), 요실금(여성) 등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았거나 교통사고 및 낙상 등을 당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림 9]에서 예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위의 질환과 사고 가

운데 하나라도 진단받았거나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중고령자는 약 40%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0%의 중고령자는 1개 이상 진단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개 진단을 받은 경우는 30%, 2개는 15%, 3개는 10%, 그리고 4개 이상은 5.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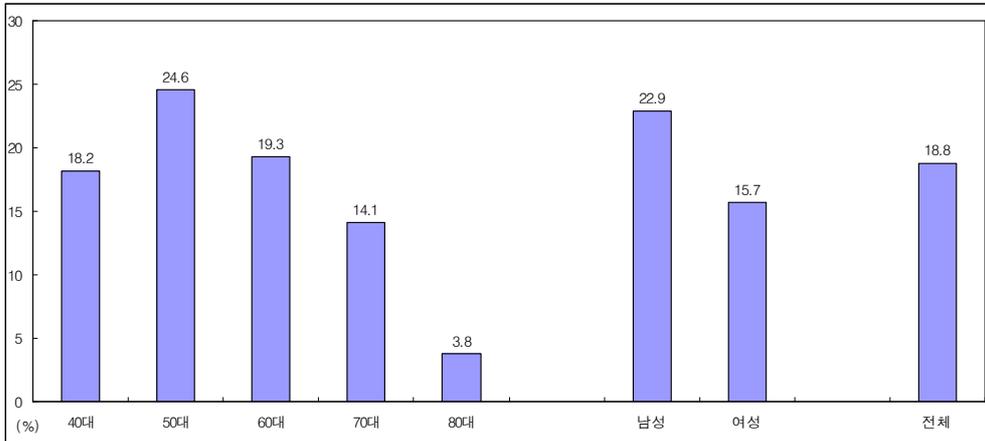
[그림 9]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주요 만성질환수



다. 규칙적 운동

다음 [그림 10]은 평소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고 응답한 중고령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1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로는

[그림 10] 평소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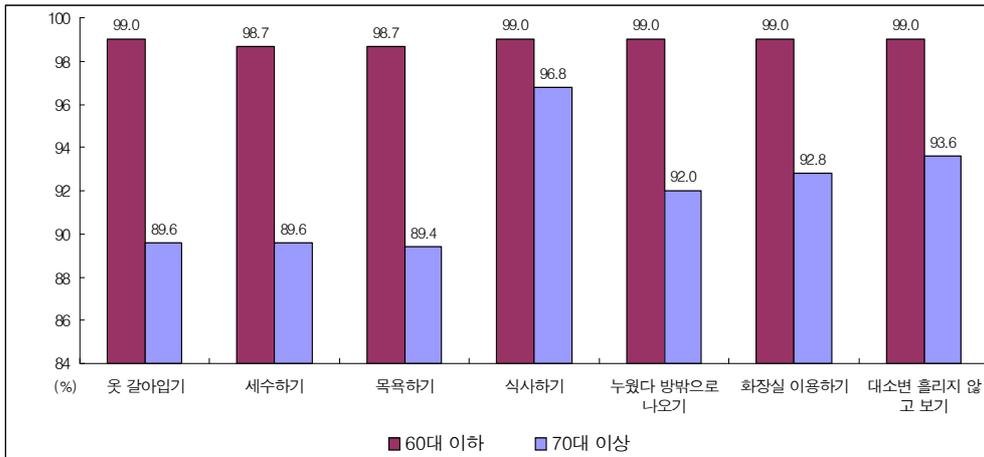
50대가 약 25%로 가장 많았고, 80대는 약 4%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성(16%)보다 남성(23%)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동은 일주일에 평균 4.5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주일에 3회 운동한다는 응답이 29.3%, 7회 운동한다는 응답이 25.6%로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한 번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4%, 1시간 초과~2시간 33%로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약 77%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기간이 7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고, 3~4년 27%, 1~2년 18% 순으로 나타났다.

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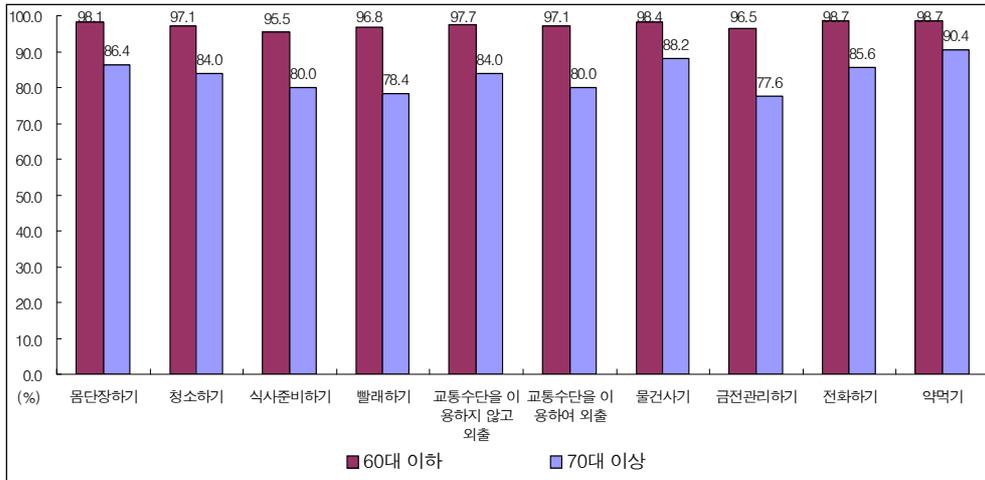
중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척도이다.<sup>11)</sup> 먼저 중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중고령자가 아무런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연령까지는 거의 모든 중고령자에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0대부터

[그림 11]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아무런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비율



11) 일상생활 수행능력 척도는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누웠다가 일어나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흘리지 않고 보기 등과 관련하여, 그리고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척도는 몸 단장하기, 청소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외출하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외출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하기, 약 먹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림 12]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아무런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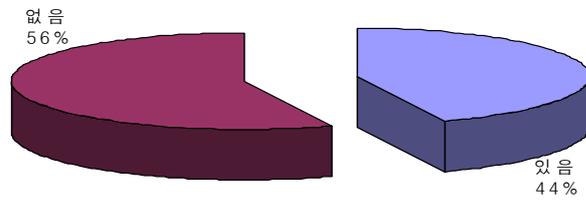
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조금 떨어져서 식사하기를 제외하고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도구적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비하여 더 낮아져서 70대 이상 10명 가운데 2명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60대 이하 역시 약 1~3.5%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70대 이상 고령자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금전 관리하기 77.6%, 빨래하기 78.4% 등이었으며, 식사준비하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외출하기 등도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 향후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

앞서 살펴본 대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도구적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는 증가한다. 향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 배우자를 제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4%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배우자가 사망할 가능성도 높아져 향후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가능성도 같이 높아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간병보험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 향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혼자 하기 어려울 때, 배우자를 제외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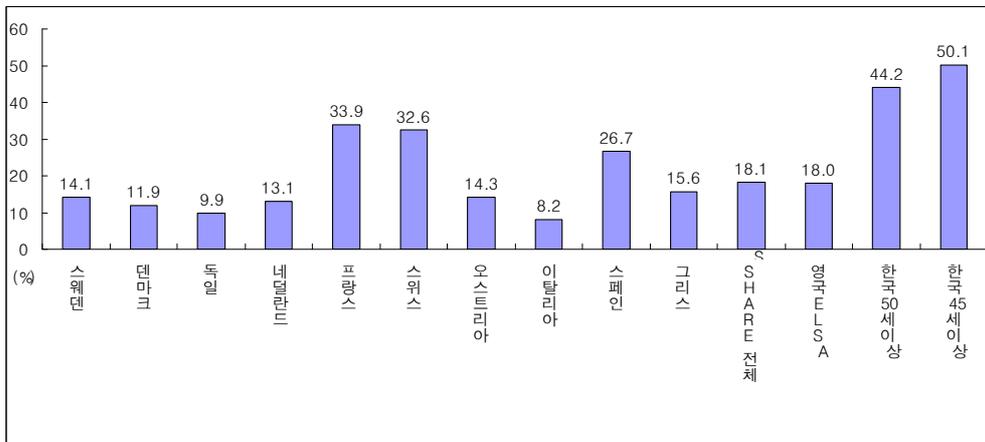


### 3. 가족관계

#### 가.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중고령자

다음 [그림 14]는 한국, 영국, 그리고 유럽 10개 국가에서 중고령자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50세 이상 중고령자 가운데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우리나라가 44%로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약 18%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약 2.5배 정도 많았다.

[그림 14] 자녀와 동거하는 중고령자 비율



#### 나. 비동거 자녀와 연락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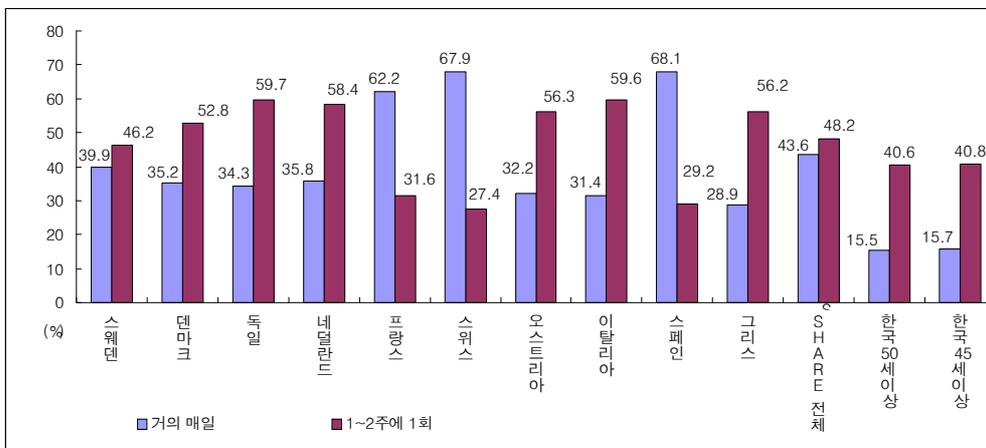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많은 반면, 같이 살지 않는 자녀 가운데 전화나 편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가장 자주 연락하는 자녀

와 연락하는 정도는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를 보면, 거의 매일 연락한다는 응답은 우리나라가 약 16%인 데 비해, 유럽 국가 평균은 44%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연락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유럽 국가는 스페인과 스위스로 68%, 프랑스 62%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 29%, 이탈리아 31%, 독일 34% 등이었다.

거의 매일 연락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 국가들도 1~2주에 한 번 정도 연락한다는 응답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한다는 응답 비율은 우리나라가 41%였으며, 유럽 평균은 48%였는데, 유럽 국가 가운데 그 비율이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60%, 네덜란드 58%, 그리스 56% 등이었다.

[그림 15]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하여 가장 자주 연락하는 자녀와의 연락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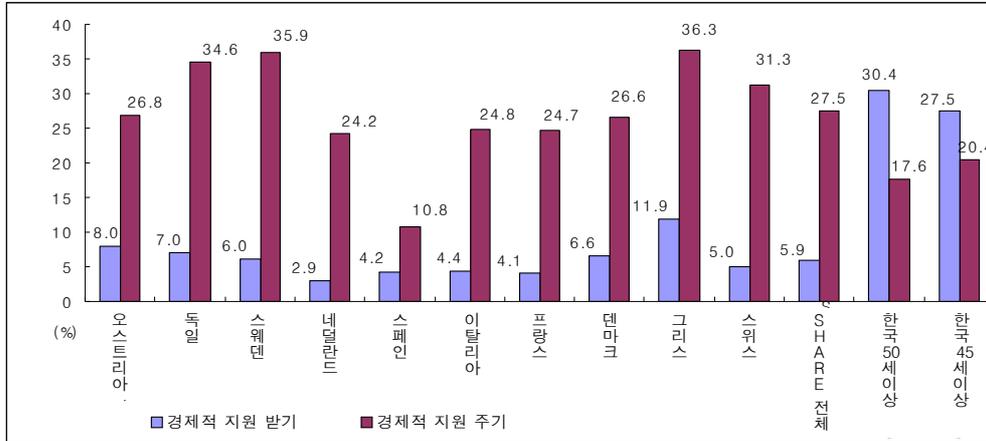
#### 다. 가족간 경제적 지원 주고 받기

작년 한 해 동안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간에 경제적 지원(우리나라는 50만원 이상, 유럽 국가는 250유로)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은 반면, 유럽 국가는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6 참조).

우리나라(50대 이상)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0%였고, 경제적 지원을 주었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6%,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는 28%로,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보다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 가운데 경제적 지원을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36%), 스웨덴(36%), 독일(35%) 등으로 나타났

고,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로 약 12%였고, 다른 국가들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지난 1년간 가족간 경제적 지원 여부



#### IV. 맺음말

이상으로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 실시 방식을 소개하고 그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서 활용할 전략을 미리 실행해 보고 점검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다.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결과는 본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반영되어 보다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것이다.

이번 예비조사가 본 조사에 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가 고령화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연령층이어서 전반적으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면접원이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조사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라 면접시간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사 초기에 면접원은 표본가구와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평일 낮 시간대’와 ‘평일 밤-주말 시간대’를 구분해 평일 낮 시간대는 주부와 고연령층을, 평일 밤-주말 시간대에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낮 시간에 접촉이 곤란한 대상자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예비조사를 통하여 면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이장(里長)’의 호의적인 반응은 조사대상자의 면접 참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그 효과는 적었지만 도시 지역에서도 동사무소, 통장, 반장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조사 대상자가 집을 비운 경우가 많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조사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본 조사는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앞서 말한 대로 인구학적 특성, 가족관계,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 등에 걸친 약 1,300여 개의 문항을,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sup>12)</sup>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도 개혁 및 정책 결정을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착하여 여러 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가능하도록 하며, 더불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의 비교연구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정책 및 학술 연구의 소중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LI**

<부표 1>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혼인중	별거	이혼	사별	미혼	기타	전체
연령대	40대	46(83.6)	3(5.5)	3(5.5)	2( 3.6)	1(1.8)	55( 12.6)
	50대	118(83.1)	5(3.5)	1(0.7)	13( 9.2)	4(2.8)	142( 32.5)
	60대	91(79.8)	-	3(2.6)	20(17.5)	-	114( 26.1)
	70대	57(57.0)	1(1.0)	1(1.0)	40(40.0)	-	100( 22.9)
	80대	10(38.5)	-	-	16(61.5)	-	26( 5.9)
성별	남성	165(87.8)	5(2.7)	4(2.1)	10( 5.3)	3(1.6)	188( 43.0)
	여성	157(63.1)	4(1.6)	4(1.6)	81(32.5)	2(0.8)	249( 57.0)
지역	특광역시	161(76.3)	4(1.9)	5(2.4)	39(18.5)	2(0.9)	211( 48.3)
	도	161(71.2)	5(2.2)	3(1.3)	52(23.0)	3(1.3)	226( 51.7)
전체		322(73.7)	9(2.1)	8(1.8)	91(20.8)	5(1.1)	437(100.0)

12)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관한 각종 사항은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될 것이다. 고령화 연구패널조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klosa.re.kr>